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채상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제가 (좌우 가슴의 종양으로) 아프다는 이야기는 남편에게 비밀로 하였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을 비롯한 여러 가족에게 아픔과 걱정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 홀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



그림 · 김흥민

그 후로 저는 매일 절을 500 배씩 하였고 건강이 허락하는 그 날까지 할 것이라 마음 먹었습니다. 또한 의식이 있는 시간에는 다라니와 관음경에 몰두하고 매사에 더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동봉서주 하며 다니는 것이 도량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염불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부처님 경전이며, 스님께 설법이었습니다.

전 이제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을 것 같았으며 다만 아이들과 부모님께 미안할 뿐, 그리 고통스럽지 않았습니...

가족에 병 숨기고 매일 5백배와 관음정근 죽음에 대한 집착 버리니 큰 병이 '씻은듯'

어쩔 수 없이 풀려 가야만 하는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로지 전 '그래, 난 나대로 살다 죽을 거야, 기도하다 죽으면 왕생극락 하겠지.'

'만공 스님 좀 봐. 열반 하시는 날, 거울 앞에서 "나 이제 자네를 떠나려 하네. 자네와 왜 오래 지냈지?" 하시며 자신의 생사를 결정하시잖아. 난 불자인데 생과 사를 초월해야 하는 거야 하며 더욱 저 자신을 타마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1월1일 새벽 두 시, 전

깜작 놀라 잠에서 깨었으며 꿈이 너무나 해괴망측 해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에 제가 갈색의 가운을 입고 부처님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

그리고 며칠 후 병원에서 사진과 초음파를 받고 의사와 저는 깜짝 놀랐으며 저의 가슴에 있던 종양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믿기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해 4월, 7월에 다시 재검사를 하였지만 가슴 부위의 종양은 말끔히 사라졌던 것 이니...

부처님 말씀에 '죄무자성증심기(罪無自成 從心起)'라 했습니다. 죄의 자성이 본래 없고 병 또한 원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이 죄와 병, 그 모든 것을 짓고 만든

언어도단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함이...

<하>

다고 하신 것이 어찌 하나의 그릇됨이 있겠습니까. 제법(諸法)의 공도리(空道理)에서 본다면 이 모든 것은 꿈 같이 존재 하는 것이지 실상은 없는 것 이니...

이렇듯 여러가지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일어났으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불·보살님들의 가피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전 남은 삶을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살 것인데 지금도 역시 부처님을 떠난 저의 삶은 말할 수 없습니...

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화엄경>을 보면 불자들이 궁극에 가서는 보현행원을 함으로서 그 극점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행원만이 우리 불자들이 가야 할 참다운 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부, 열불, 참선 등 그 모든 도리로 좋지만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파스나 말 한마디 건네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참 불자가 아닐까합니다. 구구절절 나열한 이야기들이 혹 여러 불자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지만 제겐 커다란 의미가 있는 사건이자 부처님의 커다란 책적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버금가는 경적으로 부처님게선 저를 탐금질 하셨으며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이와 급기야는 제 자신의 몸까지 탐금질 저를 문책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어리석은 중생이 오만의 눈이 띄어 고개를 숙일 수 있게 되었으며 한 걸음 부처님 곁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연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 관세음여사시여. 제가 부처님을 만난 것이 더 없는 행복입니다. 제가 불자라는 것이 최상의 기쁨입니다. 세계 생생 당신과 함께 하여지이다. 송광사 여러 스님과 사부대중 모든 분들에게 항상 불은이 함께 하소서.

힐러이 수행일기 <하>



김성규 영남대 의대교수

어쩌면 활이 들기 시작하고부터 이제까지 40년 동안 나의 뇌리에서 한 번도 떠나 본적이 없는 화두는 '불교 중흥으로 인류평화'였다. 한 때는 조직과 경제력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다. 몇 년 동안 불교활동을 통해 얻은 결론은 조직도 경제력도 그 무엇도 아니었다.

우리 인간부터 미물까지, 지구부터 우주까지 어떤 조직체이든 또한 역동성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속해있는 한국 사회나 승단이라는 조직체도 절대 변화하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한

복잡해지면서 부모, 자식, 이웃을 외면하게 된다.

<화엄경>에서도 이 우주의 구성이 날줄과 씨줄로 되어 있다고 한다. 하나의 날이 움직이면 우주가 움직인다고 한다. 자신의 생명체는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생명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깨끗한 마음을 내도록 발원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는가를 화두로 불교중흥과 인류평화 열쇠 찾기에 최선

인간의 의지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 하는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인간에 내재해 있는 탐심과 집착과 치심의 절제와 직시를 통해 깨끗함과 올바름과 깨달음을 증득하여 진리,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진리는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는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진리다. 불교란 무엇인가를 결론에서 찾을 때, 인간이 사회에 살아가는 때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 사회의 모든 부분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중심주의로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가

해야 할 때 바람직하다. 참회기도를 열심히 하면 발원하지 않는 상황이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다.

<말린다왕문경>에 나오는 나선 비구가 예를 들기를, 돌을 배에 얹고도 가라앉지 않고 감을 건널 수 있음을 비유하여 기도도 배와 같은 것이라 설명했다. 받아야 할 업도 자신의 청정한 마음에 의해서 좀더 부드럽게 또 다른 방법으로 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이다.

청정의 원리는 우리가 실천할 중요한 과제이다. 재가불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삶을 청정한 마음으로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비는 마음이 청정한 삶이며 불국토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들은 간혹 조직과 이데올로기의 허구에 빠지기도 하고, 지배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의 창출을 위하여 우리를 허구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히 것은 단지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자신의 문제로 귀착된다. 결국 진리는 진리일 뿐이다. 진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일 뿐이다.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대광[孝]수의를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선용용 제기세트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상품명	재질(성분)	원사가공지	판매가격
국화1호	삼베100%	경북안동지방	1,515,000
국화2호	삼베100%	강원일부지방	1,395,000
국화5호	삼베100%	경남남해지방	1,249,000
국화7호	삼베100%	충남서천,홍성지방	950,000
특 1호	삼베100%	중 국	670,000
보성삼베	대마+저마	전남보성지방	1,450,000
남해삼베	삼베100%	경북남해지방	2,345,000
안동삼베	삼베100%	경북안동지방	4,300,000

윤달3월21~4월20일 원하시는 날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 주문 받습니다.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閏月)은 계절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더므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애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합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윤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입혀드린 후 후두고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 2) 고품질의 수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은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저렴한 시기 윤달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만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 3) 급한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한울한울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 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하여야 매장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오.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